

## 김현미 장관, “대한민국 드론, 세계일류 기술력 확보” 당부 11일 킨텍스 <대한민국 드론 박람회> 업계 간담회서 기술개발 강조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 향해 비상토록 적극 지원 나설 터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월 11일(수) 「2019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(국토교통부 주최)」 개막식(12.11)을 맞아 우리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갖춰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.
  - 일산 킨텍스에서 12월 11일(수)부터 이틀간(12일까지) 개최되는 「2019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」는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, 임종성 의원, 기업대표, 산하기관, 학계 전문가와 드론에 관심 있는 일반 참가자 등 1,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.
- 이날 김현미 장관은 드론업계와의 간담회도 마련,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,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국내드론 제작·활용 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.
  - 드론 규제샌드사업, 기업지원허브 운영, 공공부문 드론 구매 등 주요 사업들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한 깊은 논의와 함께,
  - 국내 드론 제작·활용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국내 제품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공공부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개발과 활용의 장을 마련할 것도 주문하였다.
- 아울러, 개회사에서 “2026년 세계 5위의 드론강국을 목표로 사업용 드론 육성에 집중해 온 결과, 제작 및 활용을 포함한 시장 규모가 '17년 1,000억원에서 금년에는 3,500억을 초과했으며,
  - 드론 사용사업체수, 기체신고 수, 조종자격 취득자 수 등 드론산업 주요지표도 매년 80% 이상 급증했다”고 밝혔다.

- 이어 “정부는 미래 드론 시장 대비를 위해 에어택시·드론교통관리 체계와 같은 新 항공모빌리티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,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다져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더 노력하겠다” 고 강조했다.
- 끝으로, “우리 기업들도 세계일류가 되겠다는 남다른 각오로 기술경쟁력 확보에 매진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

2019. 12. 11

국토교통부 대변인

- 오늘 간담회 자리를 함께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
- 드론산업은 ICT, 소프트웨어, 센서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'4차 산업혁명의 총아'로 불리며, 우리의 일상과 산업 생태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
  - 미래학자이자 다빈치 연구소 소장인 토마스 프레이는 '미래에 드론이 대신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가 192개에 이른다'고 했을 정도임
  - 더욱이 4차 산업혁명 분야 중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가깝게 느끼고, 발전 속도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드론 분야임
  -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속도가 가장 빠르고, 그 활용 범위가 방대한 만큼 성장세도 가파름. 2016년만 해도 전세계 드론 시장 규모가 7조 2,000억 원이었는데 2026년에는 무려 90조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 성장 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뛰어난 미래 성장동력임
- 정부가 '17.12월 「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」을 시작으로 올 4월에 드론법 제정, 10월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등을 잇달아 발표하고, 범정부적인 드론 산업 육성에 나선 것도 그런 이유임.
  - 그동안 드론 기업지원허브 운영, 시범사업 및 시험비행장 구축,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&D 지원 등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함께,
  - 국내 제작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사업용 드론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드론활용을 추진하였음

- 사업용 드론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공공측량, 산림감시, 시설물 점검 등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초기시장 확대를 적극 추진해 왔으며,
  - 그 결과 '17년 300여대에 불과하던 공공부문 드론 대수가 금년 11월 2,000대를 돌파하였음
  - 공공분야 드론 인력 양성도 확대 추진하여, 드론 전문가도 '18년 180명(50억), '19년 300명(38억), '20년 450명(45억)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
- 국산기술의 조기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사업과 새싹기업의 도전을 촉진하는 기업지원허브 사업도 확대중임
  - 샌드박스사업은 '18년 55억, '19년 80억, '20년 100억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, 한-아세안 정상회담에서의 드론라이트쇼, 원전의 드론방어체계 실증, 제주 및 화성에 드론 실증도시 구축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
  - 판교, 대구, 부산, 인천 등 기업지원허브 사업도 지난 3년간 80여개 새싹기업에 약 120억원을 지원하였고, D사의 70억원 투자유치, J사의 수소연료전지 드론개발 등 혁신성과도 이루었음
-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음
  - 제작단계부터 자유로운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시범비행장을 구축하고 있는데, 영월, 보은, 고성은 금년 9월부터 시범운행을 개시하였고, 내년에는 인천, 화성 등 수도권에서도 추가로 운영될 예정임
- 또한, 국민의 생활과 도심교통에 큰 변화를 가져올 에어택시('23년까지 480억원)에 대한 투자와 병행하여, 이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핵심 인프라인 드론 교통관리체계(UTM)도 차근차근 준비해가고 있음

-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춰 세계무대에 당당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, 기업 현장에서는 아쉬운 점도 많고, 어려움도 많을 것이라 생각됨
-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드론산업 발전과 새로운 비상을 위해 그간의 고민과 생각을 기탄없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